

순천시장 선거 흔든 금품 의혹...진퇴양난 빠진 민주당

6·3 지방선거 이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역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선거 구도 자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순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 위원장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긴급 감찰에 착수했다.

중앙당 긴급감찰 진행...후보 유지나 교체나 검토

시민단체·당원 반발 확산...사퇴·공천 철회 요구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사업가로 추정되는 인물이 무언가를 건네는 정황과 이에 대해 선대위원장이 “고맙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후보 유지와 교체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를 유지할 경우 이미 확산된 여론 악화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로 교체를 결정할 경우에도 후속 절차와 파장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역 시민사회와 당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보 박탈과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순 후보 측은 “관계자 일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의혹 자체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선이 본격화되면 TV토론 등에서 경쟁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의혹 해소 여부

와 별개로 유권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게 된다.

당이 후보 교체를 선택할 경우 결선에 올랐던 오하근 예비후보로의 교체나 재경선이 거론된다. 전략공천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순천은 지난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 안팎의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후보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저 역시 놀라움과 고통,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자체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관계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며 “외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캠프 전반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3차 연석회의. 우원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연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양진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유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민형배, 의원직 사퇴...“쉽 없이 뛰었다”

6·3 지방선거 선거 전념...“전남광주 현장서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사진)가 국회의원의 사퇴를 하루 앞둔 28일 소회를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민형배로서 마지막 국회 일정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다”며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았고,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로 시민께 위임받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켰다”고 전했다.

그는 “총 55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1위에 올랐다는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삶과 지역의 요구, 대한민국 개혁 과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 송구하다.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쟁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다. 때로는 거센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돌아갈 다리가 지 끊는 각오로 버텼던 순간도 있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며 “치열하게, 신나게 뛴 수 있도록 끝에서 힘이 돼 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남광주의 현장에서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 약속한 변화를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곡성군수 선거 변수 될까...박웅두·이성로 단일화 추진

양 캠프측 원칙적 합의...후보 선출방식·일정 등 협의중 세부 일정 조율 ‘온도차’...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변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곡성군수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자 구도가 흘러가던 선거 판세가 양자 대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박웅두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성로 예비후보는 최근 단일화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후보 선출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양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단일화 방식은 윤곽을 드러냈지만 세부 일정에서는 온도차가 확인된다.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후보 기간을 거친 뒤 2~3일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내달 10일께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화 취지와 과정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속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절차를 서둘러 단일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고 선거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조율될 경우 단일화 성사 여부와 시점이 곧바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단일화 이후 공동 공약 점검과



선거 전략을 정비한 뒤 내달 14~15일 후보 등록에 나설 계획이다. 단일화된 후보는 현직인 조상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2파전’으로 본선거를 치르게 된다.

단일화 추진 배경에는 지난 재선거 결과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0월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8706표(55.26%)로 당선됐고, 박 후보는 5648표(35.85%), 이 후보는 850표(5.39%)를 얻었다. 당시 아권 성향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으로 승리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 측은 단일화를 통해 표 분산을 줄일 경우 승부를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단일 후보가 형성될 경우 기존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 여부가 판세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박 후보는 “지난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후보와 공약을 점검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단일화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박 후보와 힘을 합쳐 곡성을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강은미, 전남권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의로운 전환특구’ 등 동부권 핵심 공약도 발표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권 시민사회, 어민, 장애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강은미 후보는 28일 전남 동부권을 찾아 여주시민회 간담회에 참석,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수 어민회 간담회에도 참석해 동부권 해양생태자원 보전과 어민 생존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여수에서의 일정을 마친 강 후보는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출근길 인사에서 선선 뒤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동부권 대전환 핵심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산업위기에 직면한 여수·광양의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과 해양생태벨트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강 후보는 동부권 비전 발표 후 보성과 무안으로 이동, 장애 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대와 공공근로 노조 무안지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해 장애인 활동가, 현장 노동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은미 후보는 “이번 동부권·서남권 현장 방문을 기점으로 전남광주 곳곳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성희롱 발언·허위 홍보물 유포 민주 광주시장 ‘후보 자격 유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의원 경선 후보들이 과거 성희롱 발언 전력과 경선 기간 허위 과장홍보를 하고도 후보 자격이 유지됐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북구 광역의원 후보로 선출된 A후보에 대해 시장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유지 결정을 내렸다.

A후보는 9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한 것이 불거져 공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당은 예정됐던 2차 경선 일정까지 미루면서 A 후보 조사에 착수했으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았다.

광산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허위 홍보물을 유포했던 후보도 자격이 유지됐다. 이에 탈락 후보측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당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

명창환 ‘시민펀드’ 출시 24시간 만에 완판

1억원 조기 달성...8월 10일 이내 전액 상환

명창환 여주시장 후보(사진)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시민펀드’가 하루 만에 목표액을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28일 명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출시된 시민 참여형 선거자금 ‘시민펀드’는 출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목표액

1억원을 넘기며 완판됐다.

해당 펀드는 약정 이율 연 3.0% 조건으로 운영되며, 선거 이후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재원으로 오는 8월 10일 이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다.

명 후보는 “짧은 시간 안에 시민들이 보



내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 후보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여수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수산동장, 순천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현규 기자

박필순 혁신당 지역위원장 광양시장 출마 선언

박필순 조국혁신당 전남 광양지역위원장(사진)이 28일 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필순 후보는 이날 오후 광양시청 열린 린호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은 세계적인 제철소와 광양항을 가졌으나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경

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민의 삶부터 챙기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광양시 예산의 10%인 약 1000억 원을 전경 위기 재난 지원금으로 만들어 차등 지급하겠다”며 “지역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지산지소’의 원칙을



지켜 포스코가 광양도 ‘포항만큼’ 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을 광양시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운산 서울대 병원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찾도록 만드는 의료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이종욱, 청년 10대 프로젝트 발표

사회진출지원금·청년주택·미래차 생산 일자리 등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청년 사회진출지원, 청년주택 제공, 미래차 생산 일자리 등 청년이 찾아오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내놨다.

이종욱 후보는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프로젝트는 8세부터 19세까지 미래세대 수당 월 10만원 지급, 19세 사회진출 시 5000만원 지원, 지역 내 대학 등록금 0원, 33㎡ 이상의 쾌적한 청년 주택, 청년부채 상환 10년 유예, 청년농민 주택, 농지, 농기계 무상 임대 등



로 구성됐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타 치3공장을 정지차 55만대 생산으로 전환하고 GGM 생산라인을 25만 대로 확충해서 전남광주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종욱 후보는 “청년들은 당장 현재의 일자리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특별시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치는 도시, 전국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